‘초상입자’ 그것은 이면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일반적인 물리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일으키는 입자들을 총칭한다. 초상입자들은 우주단위 개척 활동에 핵심 요소이며, 전 우주에 여려 형태로 퍼져있다.

2027년 John. M. Jeol 박사가 이끄는 스위스 주제의 국제연구팀 IMSR(international material science research)에서 기존의 물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자연입자를 발견, ‘JMJ-KDY407’라 명명하여 국제사회에 발표

2027년 같은 연구소에서 ‘JMJ-KDY407 입자가 초자연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가 국제 학술지에 개제, 일반 대중에게 ‘초상입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연구의 진위여부, 실효성에 대한 문제 등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John. M. Jeol 박사는 추가적인 연구를 이어 나갈 것이며 이것이 인류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연구가 될 것이라 선언

2028년, IMSR연구소에서 JMJ-KDY407 입자를 이용한 초 자연적 현상 재현에 성공 이후 세계 각국에 초상입자 연구를 위한 연구소가 세워지면서 초상입자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받으며 연구가 가속화된다.

2030년 선진국들의 초상입자 기술에 대한 독점문제가 대두됨, OECD 가입국 내부에서도 초상입자 기술을 훔치기 위한 스파이 활동이 여럿 발각되면서 위기가 고조되어 그 해 겨울 세계 3차대전이 발발함

2042년 12년에 걸친 세계전쟁의 종전을 선언, 대통합이라는 이름아래 인류는 하나의 통합정부 ‘가이아’를 수립.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터전위에 인류는 새로운 이름으로 일어난다.

2052년 전쟁으로 인해 가속화된 초상입자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우주 개척 산업이 발달함 가이아행정부는 화성에 대한 테라포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판단. 정부의 주도아래 화성으로의 1차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진다

2056년 인공행성 ‘멜다’의 안정화작업 완료 ‘멜다’로의 2차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진다.

2056년 지구의 국가 연구기관 주도하에 워프기술 개발 ‘우주시대’의 선언

2060년 워프 탐사선 ‘인디아나’호가 최초로 인류 이외의 지적생명체와 조우함 스스로를 ‘다난’ 이라 밝힌 우주인들에 의해 우주에 더 많은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 인류는 우주를 상대로 교류를 시작한다.

2062년 풍부한 자원과 전쟁이전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개척행성 ‘시린’의 테라포밍이 완료됨

2063년 개척행성 ‘토발’ 테라포밍 완료

2065년 가이아행정부는 ‘시린’으로의 행정도시 이전을 발표(수도이전)

~대충 인류가 외계인과 교류하고 발전했다는 내용 추가하기~

2087년 ‘지구 재개발 사업’이 가이아 행정부의 승인을 받는다.